

전북도, 지역 균형발전 20년 밑그림 나왔다

5개축·5개권역 개발 계획안 마련 국토부에 제출 새만금 국제공항·신항만 조기 건설 방안 등 포함

전북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간을 5개 축,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마련에 앞서 이런 개발 계획을 수립해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계획의 핵심은 도내의 고른 발전을 위해 지역을 5개 축과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한 뒤 이를 촘촘히 연결, 내부

공간발전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 국토개발에서 소외된 강원~충청~호남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는 '강호축' 개발과 대구·경북과 연결되는 동서내륙 경제 벨트 구축에 나서 외부와 연계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강호축' 개발은 전북을 비롯해 충북, 광주, 전남, 강원, 세종, 대전, 충남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중이다.

도내 5개 축은 동서상생축, 내륙혁신성장축, 동부 휴양 힐링 축, 서남부 건강의료축, 해양레저축이며 5개 권역은 새만금권, 혁신도시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으로 5개 축과 권역을 씨줄·날줄로 엮어 '사방이 활짝 열린 전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계획안은 도시 내부는 물론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도 담았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조기 건설

해 사람·물류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토 분야 최상위 계획이자 20년 장기구상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올해 말 정부 안을 마련한 뒤 국민참여단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6월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연구원과 실무부서가 기본구상을 한 뒤 전문가 자문을 꼼꼼하게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역 미래상이 담긴 구상들이 반영되도록 정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완도군, 장보고 대사 청해진 유적 보수공사

완도군이 동북아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 대사의 도전과 개척 정신이 담긴 역사적 장소인 청해진 유적 보수공사에 들어갔다. <사진>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으로부터 7억원을 확보해 청해진 유적지 외성문, 내성문, 사당을 해체 및 보수한다. 풀베기 사업과 잔디 식재 등 경관 개선 사업도 함께 한다.

다음 달 말 완공 예정인 이 사업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사적지를 찾는 탐방객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관광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완도군은 기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세계적 영웅인 장보고 대사의 흔적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308호인 완도 청해진 유적은 1984년 9월 1일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됐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여 년의 발굴 조사 끝에 3만여점의 1200년 전 유물과 토성, 건물지를 확인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지난 26일 전주동물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생태동물원 다올마당 위원, 전주동물원 생태해설사, 관람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곰사 재개방 기념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 제공>

콘크리트·쇠창살 없애 확 넓어진 '곰사'

전주동물원, 순환 방식시스템 등 갖춘 새 보금자리 만들어

콘크리트와 쇠창살로 둘러싸인 감옥형 우리에서 생활해온 전주동물원 곰들이 쾌적한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전주시는 지난 26일 김승수 시장과 생태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동물원에서 신축 곰사 기념행사를 했다.

새로운 곰사는 '슬픈 동물원'으로 불렸던 전주동물원 동물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2016년부터 국비 7억여원 등 총 21억

원이 투입돼 지어졌다.

새로운 곰사는 기존 261㎡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온 곰들을 위해 9배 넓어진 2326㎡ 규모다.

국내 동물원으로는 드물게 총 11개의 방으로 구성된 내실과 3개의 방사장에 동물을 교차 방사할 수 있는 순환 방사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 특징이다. 또 2개의 내부 방사장도 조성됐다.

특히 동물이 좋아하는 웅덩이와 놀이시설, 오픈 공간, 나무와 꽃 등 자연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을 갖춘 보금자리로 탈바꿈됐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4마리의 반달가슴곰 가족과 6마리의 애조 불곰 등 총 10마리의 곰이 생활하게 된다.

시는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만들기 위해 동물병원을 신축했으며 그동안 다른 동물의 집들도 원래 서식지 환경과 비슷하게 개축하거나 신축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마스크팩 생산 (주)라이프로와 63억 투자협약

마스크팩 생산업체인 (주)라이프로(대표 최기현)가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최근 정읍시청에서 투자협약을 했다.

라이프로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2019년까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12만9000여

㎡부지에 63억원을 투자, 2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라이프로는 충북 청주에서 본사를 두고 있으나 정읍 공장을 신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로부터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 업체는 천연 한방재료를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생산하며 이후 건강기능식품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기업들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1936억원 들여

생활밀착형 SOC 발굴·추진

3대 분야 10대 투자 과제 선정

익산시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SOC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갖고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했다.

발굴된 투자과제의 총 사업비는 1936억원 규모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2019년도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올해 5조8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증액한 8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여가·건강활동 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한다.

또 취약지역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확산,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확충 등 일자리·활력제고 등에 나선다.

아울러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강화,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 생활안전·환경 분야에 대한 대비에 나선다.

특히 백제왕궁 전시관 리모델링, 익산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혁신 지원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나로 바람길 도시숲 조성사업,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유희부지 태양광 설치, 공용 화장실 남녀 분리개선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 주력한다.

시는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 추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2020년 국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 현실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곡성군, 한양아파트~영운천 도로 등 2곳 개설사업

곡성군은 주민들의 통행과 교통 편의를 위해 내년도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서둘러 착수했다.

28일 곡성군에 따르면 내년 사업대상지는 한양아파트~영운천 간 도시계획도로 250m, 곡성읍사무소~영운천 간 도시계획도로 100m 등 2개소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지는 곡성군 관리계획의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시설로 분류돼 있으며, 주민과 학생 통행 수요가 많은 학교 주변과 주거상업지역의 미개설 도로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내년 7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올해안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6월까지의 용지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과 차량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주 기자 kjkim@

군산시보건소 "무료 국가암검진 미리미리 받으세요"

내달 종료 앞두고 집중 홍보

군산시 보건소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이 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미수검자 개별 전화 안내 및 우편물 발송, 가정방문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률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이다.

2018년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시민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유방암·간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짝수·홀수년도 모두)이다.

현재 34개 검진기관 중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검진 예약이 조기 마감돼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을 받아야 하며 암 검진 검진 기관에 전화예약 후 검진표나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등)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